



※ 국토교통부 공동배포 보도자료입니다
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인천의꿈</b> <b>대한민국의미래</b>
담당 부서	철 도 과	담 당 자	• 철도정책팀장 남상용 ☎440-3911 • 담당자 윤영준 ☎440-3912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2023년 1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**'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·지자체 힘 합친다**  
**- 서울·인천·경기와 1차 「GTX 협의회」 개최 2차관 주재로 주요 현안 논의 -**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GTX-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 등과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「국토부·지자체 GTX 협의회」(이하 협의회)를 구성·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(時/所/參) '23.1.12(목) 1530/ 철도공단 수도권본부/ 국토부 제2차관 서울 인천 경기 담당국장

- 협의회는 “'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(1.3)”의 후속 조치로,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,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.

**【 GTX 주요 업무 보고내용 】**

-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(A·B·C 등) 적기 개통·착공 추진
- \* A노선: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('23.下)
  - B노선: 재정구간 설계 착수('23.1)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'23.1)
  - C노선: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('23.2) 및 실시협약 체결·착공('23.下)
- GTX 연장·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(안)을 도출하고, 노선별 추진 방안을 마련('23.6)하여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

- 협의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,
  - 특히,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,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내년 GTX-A 수서~동탄 구간 우선 개통,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,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” 고 하면서,
  - “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의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와 긴밀히 논의하면,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.
- 인천광역시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은 “GTX 신속 추진을 위한 「국토부·지자체 GTX 협의회」 구성 및 운영을 환영하며, GTX-A·B·C 적기 개통 및 착공에 적극 협력할 것” 이라면서, “GTX-D Y자 및 E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